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완성 박차

올 보육분야 예산 799억원 편성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다양한 사업



광양시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국 최고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데르센어린이집 원아들이 공원에서 시 정책을 알리는 글자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국 최고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의 두 번째 단계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기' 양육비 부담 완화와 빈틈없는 보육체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며 보육교직원을 만족시키는 '보육 감동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보육분야 예산 79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인구가 거의 두 배인 인근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2017년 출범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시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부모급여를 지난 2023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했으나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단시간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시설을 10개소, 11개반으로 운영 중이며 3개월-12세 아동의 가정에는 양육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78명)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광양시 거주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

직 장려금'을 사업을 시작했다. 광양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시설 이용 유아에 대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 차액보육료와 누리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2018년 19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이 2024년에는 36개소로 대폭 확충됐다. 앞으로 황금지구 한라비발디, 황금지구 더샵베이센트, 중동 산이고 운마린파크, 마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내에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개원할 예정으로 수준 높은 공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지역 내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소규모환경개선(개보수)사업비를 규모에 따라 400만원-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2년부터 총 50개소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또 전체 어린이집에 식판 세척·소독비, 공기정지기 렌탈료, 안전장제비 단체가입 비용 등을 지원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남 최초로 '아동 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해 언어 및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아동발달상담'을 추진해 보육기관을 방문한 상담사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보육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해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는 예방적 보육을 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2개소(광양읍 권역 1, 중마동 권역 1)의 본격 운영을 위해 광양읍 권역은 국공립 슬기어린이집, 중마동 권역은 민간 꿈나무어린이집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임시 운영 중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가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부담을 덜어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육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빈틈없는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젊은 층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광양시만의 특화된 보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립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대출권수 확대

20권→30권으로...대출기한 14일

순천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구독형 전자책'의 대출 권수를 월 20권에서 월 30권으로 확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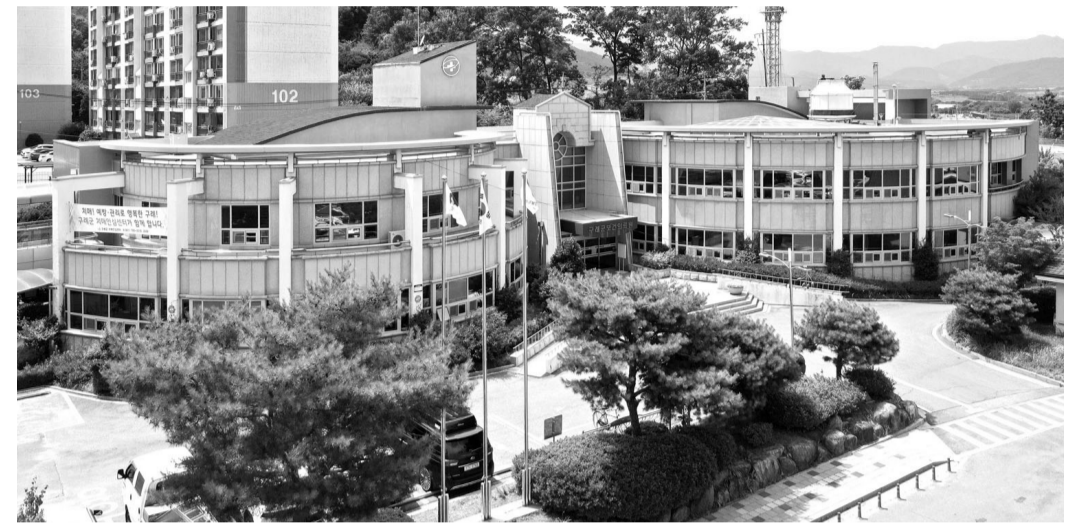
순천시에 따르면 구독형 전자책은 소장형 전자책 서비스와 달리 동시접속자 수 제한이 없어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중인 전자책은 만화, 라이트 노벨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오디오북 포함) 10만 4000여 종이다. 매일 800여 종의 신규 전자책이

추가되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는 순천시립도서관 대출증 발급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교보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다. 1인당 월 30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한은 14일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MZ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AI 시대에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보건의료원.

구례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오늘부터 재개

산모 불편 해소 준비 투입

지난 1월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구례군보건의료원의 산부인과 진료가 8일부터 재개된다.

구례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는 2015년 1월부터 (재)자연드림씨앗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으나 2024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산부인과 진료가 중단되면서 구례 지역 산모들은 인근 도시로 원정을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커지면서 군민들은 지속적으로 산부인과 진료 재개를 요청했다.

구례군은 산모 불편과 군민 의료 접근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비 투입을 결정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진료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임신 관리, 성병 검사, 자궁암 검사 등 다양한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부인과 진료 재개를 통해 지역 내 의료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11일까지 '청소년·청년축제' 주제 공모

보성군이 오는 11일까지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의 주제를 공모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청소년·청년축제'의 주제를 직접 제안할 기회 제공과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협력팀으로 문의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상당의 보성사랑

상품권(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축제'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전시와 체험 활동, 진로 상담 박람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유용한 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며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참신한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거문도 130분 주파 초쾌속 여객선 하멜호 취항

여객정원 430명, 1일 2회 왕복

여수항과 거문도를 운항하는 초쾌속 여객선 '하멜'호가 5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여수시에 따르면 KT 마린 선사는 지난 5일 여수 엑스포 터미널에서 여수-거문도 정기여객선 '하멜'호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하멜'호(590t)는 여객정원 430명, 최대속도 40노드에 달하는 초쾌속 대형 여객선으로 여수-나로도-손죽-조도-거문 항로를 운항한다.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이며, 여수-거문 간 운항 시간은 2시간 10분이 소요된



여수와 거문도를 하루 2회 왕복운항하는 '하멜'호.

다. 기존 이 항로 운항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여수-거문항로는 정기여객선 선명 만로 시기 도래 및 선박 노후화로 인해 잦은 결항, 1일 1회 왕복

에 따른 여객선 이용객 접근성 저하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

시는 여수-거문 항로 안정화를 위해 선사 공모, 조력개정, 해수부 면담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했다.

지난해는 10여 일간의 장기간 결항에 따라 지방해수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예비선 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멜'호는 해수청 공모를 거쳐 선정된 KT마린 선사의 여객선으로 해수청 최종 운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후 정식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향후 10년간 KT마린 선사와 선박 감가상각비, 운항 결손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